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 시급”

日 원전사고로 국내 ‘에너지 정책’ 논쟁 점화...광주서 토론회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 에너지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쟁은 정치권에서도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 18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관리공단 광주·전남 에너지기후변화센터 공동 주최 ‘신재생 에너지, 광주·전남의 희망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광주·전남지역 전문가들은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문체주 목포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광주·전남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실태와 잠재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광주·전남 지역은 풍력 해상 에너지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고, 태양광 흡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1일 수평면 전일사량도 높기 때문에 풍력·태양광 에너지 산업의 잠재력이 풍부하다”며 “현재 원자력이 전력 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겠지만 태양·바람·지열·해양 등을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점차 바뀌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소장도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전망과 국가정책’에서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을 부르짖고 있지만 답보상태에 있다”면서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풍력·태양광 등 발전 잠재력은 높으나 실질적 투자와 발전량은 타 시도에 비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어 “기술경쟁력 강화와 금융·인력·세계 등의 기업성장 기반을 확충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제안했다.

임나경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전 세계 핵발전소 용량은 1990년 329Gw(기가 와트)에서 2000년 349Gw, 2010년 376Gw로 20년동안 47Gw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반면 태양광 에너지는 10년 동안 40배 이상 성장했고, 풍력의 경우 30배 이상 성장된 만큼 신재생 에너지의 잠재력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정부는 원자력 르네상스를 말하지만, 세계는 신재생 에너지 르네상스 시대”라며 “2050년을 장기적 목표로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를 모두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일본 원전 사고를 계기로 에너지 정책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모두 원전의 안전 점검 및 대책 마

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국내 에너지 수급상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전제 위에서 원전의 안정성 제고와 대국민 홍보를 정부 당국에 당부하는데 주력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일각에서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확산하고 있다”며 “유언비어 유포는 우리 경제와 사회에 치명적인 혼란을 초래하고 사회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위험한 행위”라며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방사능 피해가 우려되고 이것이 현실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원자력 발전 위 기본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원전이 친환경적이라는 궤변을 중지하라”고 말했고, 국회 지식경제위 위원장인 김영환 의원은 ‘트위터’ 글에서 “원전 건설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양승헌기자 yang@kwangju.co.kr



光銀 마포금융센터지점 개점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서 박홍섭 마포구청장과 주요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광주은행 마포금융센터지점 개점식 행사를 가졌다. 광주은행 142번째 지점으로 탄생한 마포금융센터지점은 향후 동북아 중심은행의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마포구 지역 중소기업과 시민들에게 원활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서 박홍섭 마포구청장과 주요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광주은행 마포금융센터지점 개점식 행사를 가졌다.

광주은행 위안화 무역결제업무 시작

中 교통은행과 업무제휴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이 21일부터 중국 교통은행(交通銀行·Bank of Communications)과 업무제휴를 통해 위안화 무역결제업무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간 수출입 업체들은 자국통화를 달러화로 환전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환전에 따른 비용과 환율변동 등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광주은행의 위안화 무역결제업무 시행으로 대중국 무역에 달러화뿐만 아니라 위안화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광주은행은 위안화 무역결제업무에 직 접 수입대금을 지급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게 돼 환전에 따른 비용절감과 환율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중국을 상대로 수출입을 하는 기업은 이번 위안화 무역결제에 의해 환전

비용 절감과 환율변동에 따른 환리스크도 없애는 등 비용을 절감 할 수 있고, 환율변동에 따른 환리스크도 없는 등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안화로 수입대금을 결제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도 사전에 위안화를 매입해 외화예금에 적립해 두었다가 결제에 총당할 수 있게 돼 환율변동 위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

박철상 광주은행 외환영업부 부장은 “중국어 교역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위안화 무역결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위안화 무역결제업무무를 시행하게 됐다”며 “특히 중국과 교역 비중이 높은 광주·전남 수출입 기업들은 대중국 수출입 경쟁력이 강화되는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트렉스타 ‘네스핏 에볼루션’ 美서도 인정

아웃도어 전문지 ‘백패커’ 혁신적 디자인·성능 賞

아웃도어 용품을 만드는 (주)트렉스타는 17일 자사의 등산용 제품 ‘네스핏 에볼루션’이 미국의 아웃도어 전문잡지 ‘백패커(Backpacker)’의 에디터스 초이스(Editor's Choice 2011)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에디터스 초이스는 이 잡지가 지난 1년 동안 시장에 나온 아웃도어 장비 중 가장 혁신적인 디자인과 성능을 갖춘 제품을 선정해 매년 4월 수여하는 상이다. 네스핏 에볼루션은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 라이프스타일 전문잡지인 ‘엔지니어링’에서도 미국 시장 내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됐다.

트렉스타는 이 제품에 2만명의 발 데이터를 연구해 인간의 맨발과 가까운 느



낌의 신발을 만드는 네스핏 기술을 적용했다. 회사 관계자는 “발의 실제 관별 결과와 똑같이 제작해 착용감을 극대화한 신발”이라며 “신발산업진흥센터의 연구 지원이 ‘엔지니어링’에서도 미국 시장 내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신세계 조창현 대표 선임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조창현)은 지난 18일 오전 백화점 9층 회의실에서 2010년도 회계기준 제16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창현 총괄인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재무상대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안 승인 ▲사내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등의 의안 등이 통과됐다.

조창현 대표이사는 “공격적인 상권 및 고객 확대를 통한 성장 우위를 확보하겠다”며 “지역 1번점 격에 맞는 사회적 기업 모델 구현과 지역 친화,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고객, 주주, 종업원, 협력사가 모두 공유하는 지역 유통기업이 되겠다”고 신임 대표이사 포부를 밝혔다.

한편 광주신세계는 2010년 당기순이익 441억원으로 전년 대비 21% 성장을 이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세 일 글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힘 쏟겠다”

장춘상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35년간 중소기업을 운영해 온 경험에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등 중소기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여로를 해소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장춘상 광주·전남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제24대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5년 2월 말까지 4년이다. 장 신임 부회장은 전북 정읍 출생

으로, 공작기계용 소일림프 등을 생산하는 당양의 아룡기공(주)을 경영하고 있다.

광주전남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회장·담양군 지역경제인협의회 회장 등을 맡아 지역 중소기업의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古家 고향의 맛- 전통 **고가약소리탕**

약탕기 홍삼삼계탕

약탕기 홍삼삼계탕 4월1일개시 1인분 13,000원

홍삼은? 한의학적으로 가장 오랜 약용 역사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우수한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주차장 및 계모임, 단체모임 가능한 연회석 준비

점/심/특/선	약소리탕
오리탕 5,000원	1마리 36,000원
11:30~1시 까지	반마리 18,000원
	1인분 9,000원

고가약소리탕 약탕기홍삼삼계탕

예약문의 062)226-8254

얼마 전 우리나라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린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우리나라 암의 사망 원인의 1위이며, 우리 가족이나 친척 중에 암으로 고생하거나 사망한 경험을 누구나 갖고 있다. 게다가 우리 주변에 각종 발암물질로 뒤 덮여 있으며 학계의 연구보고서와 각종 매스컴에서 암은 선천적으로 유전되는 것과 후천적으로 오래된 잘못된 식생활습관이나 각종환경에 기인한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암의 공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도 될 수 있게, 건강이 조금만 이상해도 항상 내가 암은 아닌가 하고 염려한다. 하지만 암은 자각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면 이미 많이 진행된 되어 치료시기를 놓치어 얼마 안 가서 사망하거나, 경제력이 뒷받침 될 경우엔 오랜 기간 방사선 항암치료 및 민간요법에 의존하여 평생 온 가족이 같이 매달려 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치료비 감당을 못하여 그만 포기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학계에 알려진 암의 발생과정은 살펴보면 암은 한 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여러 단계를 거쳐 발생한다. 발암물질이나 활성산소에 의해 세포 속 DNA가 손상을 입게 되면 돌연변이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암의 시작이다. 이런 돌연변이 세포가 늘어나면 종양으로 발전하고 마침내 악성종양이 된다. 돌연변이가 된 세포가 증식하는 가운데서 종양이 생겨나게 되는데 돌연변이 세포가 암 덩어리가 되기까지 통상 1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년 전부터 우리 인간의 유전자변이 분석연구를 통해 선천적 후천적인 암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기법은 주로 대형 암 전문병원에서 고가인 300만~3000만 원으로 검사되고 있어 일반인들에게 좀더 편리할 수 있는 검사였다.

하지만 진스토리에서는 벤처기업 다이오진 이 개발 특허 등록 된 첨단기법인 암유전자분석자 (다이오진 CG Check: 혈장DNA 총량검사, 유전자 메틸화 검사,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및 추가 DNA 검사를 간단한 체혈만으로 일반인들이 누구나 암유전자분석검사를 통해 암 유전자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전에 CT나 MRI 등의 현 단계가 조차도 발견하기 어려운(기술로 1Cm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왔다.

최근에는 진스토리 암 유전자검사를 통해 건강하다고 자신 하던 분들에게서도 선종성 용종, 미세암 또는 초기암이 발견, 제거하여 새롭게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 들이 늘어 나고 있다. 이 진스토리 암유전자 조기 검사는 이미 암으로 형성 된 것을 발견하기 보다는 암으로 형성 되기 전의 상태를 파악 해 주어 암을 사전에 차단 억제하는 예방효과를 통해 건강한 행복한 수명 연장 할 수 있으므로 가족 중에 암환자가 계시면 분, 암 치료 후 재발을 두려워하시는 분, 환경호르몬에 노출 되신 분, 장기적인 스트레스로 고생하시는 분, 용종이나 선종을 제거하신 분들은 꼭 받아 보아야 할 검사 되었다.

또한, 자녀들의 건강 과 부모님께 건강 효과 상품으로 인기가 높 것으로 예상되며, 직장인들의 종합건강진과 아울러 필수적인 암 유전자 검사로 자리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진스토리에서는 이 암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컨설팅 할 GSC(진스토리 컨설턴트)도 모집한다.

진스토리 암 유전자검사로 암 공포에서 해방되세요!

(주)진스토리 | 문의전화 : 062-385-2212~3 www.genestory.kr
광주광역시 서구 마곡동 172-1 3층